



NO.2158

하늘 마음

2024년 10월 13일
연중 제28주일
군인 주일



하인리히 호프만의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입당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지혜 7,7-11

회답송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0,17-30

영성재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폭력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레오 신부

인터넷에 ‘폭력’이라고 치면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에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폭력만 정의 내리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언어폭력, 괴롭힘, 온라인 폭력 조금 더 나아가서 성폭력 등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Freepik



출처 : Freepik

우리는 왜 폭력을 행할까요?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지 못해서 쉽게 흥분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무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오히려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폭력적인 영화와 드라마 등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무언가에 대한 불만을 폭력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적인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 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행했을 때 싫어한다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는 그래도 돼.’라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당할 수 있겠지만 어딘가에서는 내가 ‘저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면 다른 이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됩니다. 내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나도 남을 존중해야 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를 무시한다고 내가 그 사람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 잘못된 우월함을 즐기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Freepik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폭력을 행한다면 서로 간에 인간적인 존중과 존엄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 감정 해소의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뀌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그냥 그 순간 잠시일 뿐입니다.



출처 : Freepik

이 이야기는 저희가 5월에 이야기 나눈 ‘사랑과 책임’에 대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존엄함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함께 갖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폭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하늘마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채널 추가하고 카톡으로 하늘마음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메인 - 우측 상단 돋보기로 검색 - '하늘마음'검색 - 친구추가하기



◀ 왼쪽 QR코드 스캔하고 하늘마음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하세요!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태어난 김에 성당일주

지쳐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주교좌 성당, 남천성당 [부산교구]



미디어부 부서원

교사 김해리 헬레나

하늘마음 친구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파랗고 높은 하늘이 예쁜 계절! 가을이 찾아왔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잘 느껴지나요? 태어난 김에 성당일주, 이번 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있는 **남천성당**을 소개할게요. 이곳은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남천성당은 1979년 설립된 주교좌 성당이며, 부산교구의 사제서품식 등 많은 행사가 가능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 큰 성당 중 한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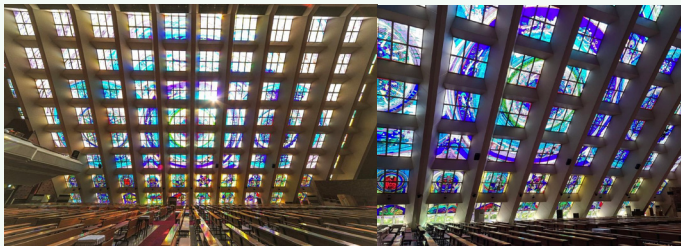
남천성당으로 들어가는 길, 마당에서 바라본 성당은 보통의 성당들과는 다르게 삼각형의 모양이 먼저 눈에 띄는 데요, 성당을 지을 때 항구도시인 부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범선 형태와 돛의 모양을 반영했

다고 합니다. 성당 오른쪽에 보이는 길쭉한 종탑은 천국의 열쇠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당을 지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한쪽 벽면이 바닥에서 45도 경사를 이루는 형태에 벽을 가득 채운 웅장한 스테인드글라스가 눈에 띄어요. 가로 53m, 세로 42m 크기의 스테인드글라스에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개의 큰 원을 중심으로 태초의 빛과 물의 창조, 하늘의 영광을 표현했어요.





미사를 드리는 동안 거대한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자연채광으로 성전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드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웅장함을 사진으로 담아보려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만큼 다 담아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니, 부산을 여행하는 친구들은 꼭 직접 가서 보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 뒤편의 큰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성가를 듣고 있으니 미사 중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미사가 끝난 후 성전 뒤편으로 가보니 잘 꾸며진 화단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모 동산이 펼쳐져 있었어요. 성당 앞에는 남천성당의 주보성인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동상과 **상재상서(上宰相書)**¹⁾가 보였어요.



이제 부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다를 가보도록 해요. 부산에는 많은 해수욕장이 있지만, 저는 남천성당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 방문했어요. 송도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멋진 파도가 있어서 서핑, 카약, 제트스키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곳은 더욱

매력적인 장소가 될 거예요. 송도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사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신발을 벗고 해안가를 걸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주변에는 넓은 바다가 잘 보이는 많은 카페들이 있으니, 카페에서 아름다운 오션뷰를 만끽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놀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부산 여행 어땠나요? 다음 태어난 김에 성당일주도 기대해 주세요!

1 상재상서(上宰相書) : 1839년 정하상 바오로 성인이 천주교 교리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한국 최초의 호교론서



복음자리

2024년 10월 13일 | 연중 제28주일 (군인 주일)
(마르 10, 17-30)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마르 10, 21)

새겨보기

계명을 잘 지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가진 재산 모두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왜 가진 재산 모두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계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느님이 아닌 돈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학원 때문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미사에 나오지 못한다는 분들을 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주님 맛들이기를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느님께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